즉시 배포용: 2016 년 10 월 7 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플로리다를 강타한 허리케인 MATTHEW 에 대한 대응 조치로 뉴욕의 비상 관리 인력 지원 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가 허리케인 Matthew 가 휩쓸고 간 플로리다를 지원하기 위하여 비상 관리 인력을 파견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의 팀이 탤러해시에 위치한 플로리다 비상 운영 센터에서 일요일 아침부터 14 일 동안의 파견 근무를 시작하면서 지휘 참모 지원 업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허리케인을 상대하고 있는 주들의 요청에 따라 추가 인력과 자원이 파견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민들은 대자연이 초래할 수 있는 엄청난 파괴와 그 여파가 얼마나 참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Matthew 가 휩쓸고 간 후에, 저는 복구 작업으로 플로리다를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비상 관리 전문가팀을 보내도록 뉴욕주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에 지시했습니다. 뉴욕주는 이웃 주들이 요구하는 시기에 맞추어 대기 상태에 있을 것이며, 폭풍 피해 복구와 재건을 지속적으로 도울 것입니다."

뉴욕주는 자연 재해 후에 다른 주들을 도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Frances, Ivan, Dennis 가 휩쓸고 간 뒤에 플로리다에 비슷한 지원팀을 보낸 것 뿐만 아니라, 뉴욕주는 허리케인 Gustav 가 덮친 후에 또 다른 18 명팀을 파견했고 또한 허리케인 Katrina 후에 루이지애나를 지원하기 위하여 300 명 이상의 다수 기관 합동팀을 파견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뉴욕주는 산불 진압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러 번 서쪽에 있는 주로 소방대원들을 보내왔습니다.

허리케인 Matthew 는 현재 3 등급 허리케인입니다. 이 폭풍은 오늘 플로리다 동부 해안에서 지속되다가 어느정도는 약화될 것이라고 기상관측되고 있습니다. 토요일까지, 조지아와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해안 가까이 또는 멀리 접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